

기아차 멕시코·삼성전자 베트남에 생산공장 신설

‘생산물량 감소’ 광주경제 악영향 우려 크다

기업들 “북미수출 증대” “생산기지 다변화” 주장

광주에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해외공장 신설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산업계는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오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외시장 확대 및 생산시설 다양화 등이 해외공장 신설의 이유라며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몬테레이에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고 조만간 멕시코 주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MOU가 체결 직후 작공에 들어가 2016년 연산 30만대 규모

의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멕시코 공장이 지어지면 기아차의 첫 번째 남미지역 공장이자, 여섯 번째 해외공장이 된다. 기아차가 멕시코를 차기 생산기지로 선택한 것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가까운 입지 조건, 낮은 인건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은 북미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멕시코 공장이 지어지면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

산중인 쏘울의 생산라인이 들어설 것이라 밝혔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공장 착공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생산 차종과 관련,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53만대의 생산목표를 세운 기아차 광주공장은 62만대의 생산규모를 갖춘데다 매년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에 있어, 생산물량이 감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생산량 조정은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

앞서 지난달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1조 원 가량을 투자, 대규모 가전공장 설립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가전사업이 겹치는 광주사업장의 이전 가능성 또한 제기

됐었으나 삼성전자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린 700만원대의 ‘세프 컬렉션’ 냉장고 등 프리미엄급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와 에어컨의 핵심 부품인 압축기를 생산중인 광주사업장의 현재 상황상 라인 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베트남 공장은 신중국 시장 및 생산기지 다양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과거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가 미국에서 덤핑 판정을 받는 등 계속되는 무역 분쟁에 따라 생산기지를 분산시키고, 높아진 중국 인건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2.21 (+13.70)	▼ 금리 2.68% (-0.01)
▲ 코스닥 537.06 (+5.63)	▼ 환율 1011.80원 (-1.60)

7~9월 광주 3434가구·전남 1771가구 입주

하반기 전·월세난 완화 기대

7~9월 광주·전남지역에 각각 3434가구, 1771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하반기 전·월세난 완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도교통부는 지난 30일 7~9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집계한 결과, 5만9168가구(조합 물량 제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는 7월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 EG The1 7블록 310가구·5블록 378가구, 남구 효동2지구 A3블록 324가구 등

1556가구가 집주인을 맞는다. 이어 8월에는 북구 임동 미소래 168가구와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 모아엘가 6블록 404가구 등 1108가구, 9월에는 남구 주월동 광명 메이루즈 343가구,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 진아리채 315가구 등 77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7월 남악신도시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공동28 538가구, 8월 목포남교 1블록 204가구, 9월 광주·전남 공동역 신도시 B8블록 1029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볼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휴대전화 가입비

최대 1만2000원 인하

이르면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최대 1만2000원가량 인하된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9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작년 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가입비 인하는 작년(전년 대비 40%)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2015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T는 현재 2만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이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연간 1700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2주만에 2000선 회복

지난 30일 코스피가 국내외 주요 일정을 앞두고 광명세가 형성된 가운데 외국인 ‘사자’에 2주만에 2000선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70포인트(0.69%) 상승한 2002.21로 마감했다. 증가가 2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7일(2001.55)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정부포상

유공자 주택 개·보수 공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박철홍) 소속 5개 회원사가 지난 30일 서울 대한주택보증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완료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이들 회원사는 해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한 공고를 인정받았다.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주)대광건설(대표 조왕석)은 대통령표창을, 골드클래스(주)(대표 박철홍)는 국무총리표창을, 중흥건설(주)(대표 이길호)과 온세건설(주)은 각각

국도교통부장관 표창을, 해립건설(대표 한동주)은 국가보훈처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주)오아종합건설(대표 박치영)과 진아건설(주)(대표 조정환), (주)삼라(대표 오우현), (주)영무건설(대표 박재홍), 대성건설(주)(대표 임흥근), (주)진시빌주택(대표 이영웅), (주)부스주택(대표 이정희)은 국가보훈처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994년부터 21년째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에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56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자 나이 서른... 이제 결혼할 때

여성 초혼 평균연령 광주 29.7세, 전남 29세

‘2014 통계로 본 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인구에서 여성 우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매년 높아져 3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4 통계로 본 광주·전남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들의 초혼 평균연령은 광주 29.7세와 전남 29세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27.4세, 26.4세)보다 각각 2.3세와 2.6세 높아진 것이다. 2013년 기준 남성의 초혼연령은 광주 32.2세, 전남 31.8세로 같은지역 여성보다 각각 2.5세, 2.8세 높았다.

광주·전남 여성의 평균 재혼연령은 각

각 42.1세와 42.7세로, 10년 전보다 3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광주는 6.1%, 전남은 10.6%였다. 광주는 2008년(8.7%)을 정점으로 전남은 2006년(16.1%)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입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광주가 1.295명, 전남은 1.642명이었다. 특히 전남은 9개 광역단체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광주·전남 모두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고 광주의 경우 20대는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남은 30대와 40대 초반의 출산율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용률은 광주는 48.0%, 전남은 52.1%였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기준 3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이 증가했으며 전남은 40만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이 늘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여성은 광주는 100명중 18.5명, 전남은 32.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 결혼’ 여부에 대해 광주는 61.5%가, 전남은 56.5%가 상관없다고 답했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100명(13세 이상)중 85.3명, 전남은 87명이 긍정적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월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 악화

기업경기지수 70 ... 9개월만에 최저치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체의 경기는 악화된 반면 비제조업체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2014년 6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연합 BSI는 70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의 연합 BSI는 지난해 11월 6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비제조업들은 7월 연합 전망BSI는 76으로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내다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지표별로는 매출 BSI의 6월 실적 및 7월 전망은 86과 92로 모두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채산성 BSI의 6월 실적은 8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반면 7월 전망은 85로 전월과 동일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뿔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뿔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www.yh-bus.com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대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